

【논문】

## 감정은 자연종인가?

—감정의 자연종 지위 논쟁과 감정 제거주의—

천 현 득\*

【주제분류】 심리철학, 과학철학

【주요어】 감정, 자연종, 속성다발증, 감정 제거주의

【논문초록】 감정 개념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주장은 낯선 것이 아니다. 이는 왜 아직까지 다양한 감정 이론들이 난립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이 글에서 나는 감정의 자연종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전통적 자연종 개념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전통적 자연종의 확장 개념으로서 ‘항상성을 지닌 속성다발증’을 제안하고, 이를 감정 논의에 적용하여 감정의 자연종 지위를 검토한다. 새로운 자연종 개념에 비추어 감정은 자연종이 아니라는 그리피스의 견해를 옹호하고 비판자들의 반론에 대응한다. 그러나 감정 제거주의를 주장하는 그리피스의 견해를 비판하고, 감정이 자연종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개념을 제거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감정에 대한 연구는 왜 그리 어려운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감정의 본성을 포착해내기 위해 애써왔지만, 왜 아직도 대체로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가? 역사상 감정의 본성을 밝히려는 수많은 이론들과 다양한 전통들이 있어왔다. 데카르트,

---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박사과정 수료

흠, 제임스의 계보는 있는 느낌 이론이 있는가 하면, 스키너와 같이 감정을 일종의 행동 성향으로 파악하는 행동주의 전통도 있다. 스토아 학파를 이어받은 솔로몬과 누스바움 같은 대표적인 인지주의자도 있는 반면, 다윈을 따라 감정이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한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진화론 전통도 있다. 감정이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사회구성주의적 전통도 존재한다.<sup>1)</sup>

현대의 주요 이론들만 꼽는다 해도 인지주의, 진화심리학, 신경생리학, 사회구성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왜 이렇게도 다양한 전통들이 존재하면서 여전히 각축하고 있는가? 각 전통들은 감정의 어떤 특징들을 잘 설명해냄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잘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의 한두 가지 측면만을 부각시켜 모든 감정이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고 혹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예컨대, 제임스-랭 이론은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대개 동반하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주목하고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감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시켰다. 근래에 들어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감정의 신경적 기초를 밝히는 연구에 뛰어들었는데, 그들은 신체의 생리적, 신경학적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제임스-랭 이론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제임스-랭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신체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자각으로 정의되고, 고도로 인지적이고 사회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들조차도 동일한 감정의 정의를 만족한다.<sup>3)</sup>

1) 예를 들어, 감정에 대한 철학 논문을 엮은 R.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를 보라. 제목만 보아도 얼마나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경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대표적인 저술로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학자들의 연구인 LeDoux-(1996), Damasio(1994) & (1999) & (2003)을 보라.

3) James(1884) 참조; Prinz(2004a)는 제임스 이론의 난점들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수정을 가하지만, 제임스-랭 이론의 기본골격을 여전히 옹호한다. 거기에서 프린츠는 자신의

그러나 인지주의자들은 감정의 지향성과 합리성을 설명하는 문제, 감정에 평가 혹은 평가적 판단이 개입한다는 근거, 신체적 변화가 감정을 느끼기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논증 등을 통해서 비인지주의를 공격한다. 사실상 감정 이론이 설명해야 할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감정이 갖는 정향성(directedness)과 지향성(intentionality), 감정의 개별화(individuation) 문제, 신체적 변화와의 관계, 감정에서 평가적 요소가 하는 역할, 감정을 느낀다는 것의 정체와 느낄 때 전형적으로 동반하는 표정 및 생리적·신경적 변화, 동물의 감정과 인간 감정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이 모두 감정 이론의 피설명항(explanandum)이다. 비인지주의는 특히 감정의 합리성과 지향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인지주의는 감정의 지향성 문제와 개별화 문제 등에서 매우 유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감정적 느낌과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정 이론이 설명해야 할 현상들이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하다면, 과연 감정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가능한지 점검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작업일 것이다. 과연 ‘감정’이라는 개념이 단일한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지 혹은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을 떠받칠 수 있는 강건한 개념인지 검토하는 것이 일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감정은 자연종인가”라는 물음을 묻고 그것에 답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문들을 풀어보고자 한다. 하나의 이론을 통해 감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감정 개념은 하나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자연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자연종 개념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나는 전통적인 자연종 개념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논의 맥락에 유관한 자연종 개념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감정의 자연종 논쟁에 대한 의미있는 해결을 시도하겠다.

---

‘체현된 평가’ 이론을 짧지만 핵심적으로 설명한다. 국내 문헌으로는 양선이(2007)을 참조할 수 있다.

## I. 감정은 자연종이 아니다?

‘감정’이라는 일상 개념이 통일적인 자연과학적 탐구의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감정이 자연종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왔다.<sup>4)</sup> 그렇다면 왜 지금 감정의 자연종 지위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하는가? 그것은 감정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많은 이들의 논증이 겉보기와 달리 탄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종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크게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검토해보고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자연종 개념이 현재의 논의에서 유용한 것이 아님을 드러낼 것이다.

감정의 자연종 지위를 의심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논증이 사용된다. 하나는 경험적 논증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 논증이다. 먼저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의존하는 경험적 논증을 살펴보자.

엄격히 신경과학적 수준에서는 감정이 자연종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 능력(vision faculty),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 능력(auditory faculty), 언어를 담당하는 언어 능력(language faculty)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와는 달리 감정을 담당하고 주관하는 감정 능력(emotion faculty)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sup>5)</sup> 변연계(limbic system)가 감정을 포괄적으로 관장

---

4) 찰랜드는 많은 학자들이 감정이 자연종이 아니라고 주장을 단지 주문(mantra)처럼 되풀이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주문’이라는 표현이 지나친 비유일 수 있으나, 확고한 근거 없이 그저 반복되는 주장에 대한 일침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Charland(2002), p. 511를 보라. 그러나 나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이 근거 없이 되풀이된 주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5) LeDoux(1996), p. 16.

하는 두뇌 능력이라는 변연계 이론이 한때 유행했지만, 현대의 신경과학적 발견들에 의해 상당부분 비판되었다. 신경과학자 르두는 감정과 같이 실체 없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두뇌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sup>6)</sup> 그러나 감정에 대응하는 단일한 두뇌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감정이 자연종이라는 주장이 반박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예컨대, 신경과학자 판크셉은 단일한 감정 회로(emotional circuit)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인 감정 체계들이 공유하는 심신신경학적(psychoneurological) 속성들이 있음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sup>7)</sup> 여전히 감정은 신경생물학적 종일 수 있는데,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신경 기저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감정이 자연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하나의 두뇌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제한은 지나치게 강한 조건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험적 반론은 철학자 로티(A. Rorty)의 논증이다. 그녀는 “감정들은 동기(motives), 기분(mood), 태도(attitude)와 구별되는 하나의 자연종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그녀는 다른 철학자들의 논증과는 달리 추상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고 다소 경험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로티는 서구 사상사에서 정념(passion), 감정(emotion), 정서(sentiment)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적, 문학적, 과학적 관점들이 어떻게 얽히면서 공진화해왔는지를 풍부하게 그려낸다. 그녀의 기술이 풍부한 만큼 핵심을 잡아내기도 쉽지는 않지만, 로티의 요지는 간략하게 말

6) 철학자 그리피스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는 어떤 신경생물학적 존재자가 자연종이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과정(one kind of process)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Griffiths 1997, p. 14). 그렇지만 감정과 동일시될 수 있는 한 종류의 과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자연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리피스의 견해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다음 절에서 그리피스가 생각하는 자연종 개념과 그가 감정은 자연종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의 의미를 명료하게 할 것이다.

7) Panksepp(2000) 참조

8) Rorty(2004), p. 269.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감정의 사회적 역할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단순히 감정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부질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의 부류(class)로 묶어줄 수 있으면서 모든 감정들이 공유하는 공통 속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은 별개의(distinct) 심적 상태의 부류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정은 통일된 심리학 영역을 형성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따라서 그것들은 자연종이 아니다.<sup>9)</sup>

이제 감정은 별개의 심리학적 부류(psychological class)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철학적 반론을 살펴보자. 드 수자는 케니가 도입한 바 있는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 개념을 이용해서 감정이 하나의 심리학적 부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sup>10)</sup> 어떤 태도의 형식적 대상이란 간략히 말해 그것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믿음의 형식적 대상은 참인데, 이는 믿음이 참에 도달했을 때 성공적이라는 말과 같다. 유사하게 욕구의 형식적 대상은 만족이다. 그러나 감정에는 하나의 성공 기준, 하나의 형식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은 믿음이나 욕구와 같은 명제 태도와 달리, 하나의 심리학적 부류로 볼 수 없다. 요컨대, 감정은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적 대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심리학적 부류를 형성하지 못한다.<sup>11)</sup>

그런데 드 수자의 논증은 감정 논의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해준다

9) Rorty(1978) & (2004) 참조; 오래전부터 그녀는 “감정은 하나의 자연적 부류(natural class)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말해왔다. Rorty-(1978), p. 141를 보라.

10) de Sousa(1987), p. 20.

11)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드 수자의 논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그는 형식적 대상에 의해서 감정을 분석했는데, 형식적 대상이라는 분석틀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미리 감정의 자연종 지위를 박탈하는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 둘째, 형식적 대상에 의한 논증은 거의 전적으로 선형적이다. 이는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정이 별개의 심리학적 부류임을 주장하려는 사람에게선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Charland(2002), p. 526를 참조하라.

는 점에서 흥미롭다. 감정 일반에 대한 논의와 공포 같은 개별 감정에 대한 논의가 구분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감정 자체는 하나의 형식적 대상을 갖지 않지만, 개별 감정들은 특정한 형식적 대상을 가질 수 있다.<sup>12)</sup> 그래서 드 수자의 기준에 따르면, 개별 감정 각각은 자연종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만일 형식적 대상을 갖는지 여부가 자연종인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감정 일반에 대한 연구는 성공적이지 못할지라도 특정한 개별 감정에 대한 연구를 여전히 실효성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감정 일반의 자연종 지위 문제와 개별 감정들의 자연종 지위 문제를 구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sup>13)</sup>

감정이 자연종일 수 없다는 논증들에 대해 정리해보자. 이 절의 목적은 각각의 논증들을 모두 꼼꼼하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 
- 12) 실제로 de Sousa(2002)는 몇몇 감정들이 형식적 대상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감정적 진리(emotional truth) 개념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명제와 믿음 같은 명제 상태만 진리를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고, 명제적 진리와 감정적 진리를 포괄하는 일반적 진리(generic Truth) 개념을 옹호한다. 그가 옹호하려는 감정적 진리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어떤 명제(p)나 대상(t)이 한 감정 E의 형식적 대상에 맞을(fit)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E(p) 또는 E(t)는 성공적이다. 그녀의 감정적 진리 개념은 개별 감정들이 고유한 형식적 대상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대상을 갖는지 여부가 자연종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면 개별 감정들이 자연종일 수 있다.
- 13) 둘 사이의 관계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개별 감정들이 자연종이 아니라면, 감정 일반은 자연종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 일반이 자연종이지 않더라도 특정한 몇몇 감정은 자연종일 수 있다. 따라서 감정 일반이 자연종이라는 것은 개별 감정이 자연종이라는 충분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며, 반대로 개별 감정이 자연종이라는 것은 감정 일반이 자연종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충분치 않다. 뒤에서 보겠지만, 감정의 자연종 지위를 거부하면서 감정 제거주의를 주장하는 그리피스의 경우 감정 일반의 자연종 지위를 부정할 뿐 아니라 몇몇 개별 감정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로티와 드 수자의 주장 밑에 깔려있는 어떤 공통된 전제가 있음은 드러내고자 한다. 그것은 감정의 모든 사례들이 공유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종일 수 없다는 전제이다. 드 수자에게 있어서 감정은 고유한 형식적 대상을 결여하기 때문에 자연종이 아니고, 로티에게 있어 모든 감정들이 공유하는 공통 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자연종이 아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자연종 개념, 즉 러셀식 자연종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셀식 자연종 개념에 따르면, 한 종은 필요충분한 속성들의 집합에 의해 정의될 때 자연종이 된다.<sup>14)</sup> 흥미롭게도 드 수자와 로티 뿐만 아니라 감정이 자연종 지위를 거부한 많은 철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자연종 개념에 의존해 왔다. 예컨대, 노이(J. Neu)는 감정들이 규약적인 경계(conventional boundary)를 갖기 때문에 자연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sup>15)</sup> 감정이 자연종이라면 사회적 규약이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경계를 갖는 집합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는데, 감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경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자연종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감정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많은 경험적, 철학적 논증들은 이렇듯 자연에 의한 정확한 경계 설정 및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전통적 자연종 개념에 의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종 개념이 유의미할 경우에만, 감정의 자연종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 그러나 나는 전통적 자연종 개념이 협소하고 제한적인 개념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만일 그 개념이 현재 우리 논의에 유의미한 개념이 아니라면, 그것에 기초해서 감정의 자연종 지위에 대해 벌인 논쟁들은 그 중요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그런 자연종 개념에 기초해서 감정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흥미로운 주장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음 절에는 도

---

14) Hacking(1991)를 참조할 것.

15) Neu(2000), p. 19.



대체 어떤 자연종 개념이 현재 우리에게 유용한지, 그리고 그것에 기초했을 때 감정은 자연종인지를 살펴보겠다.

## II. 자연종 개념의 해명: 필요충분조건에서 속성다발로

자연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감정이 자연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넬슨 굿맨(N. Goodman)의 잘 알려진 논의에 따르면, 귀납과 설명이라는 과학의 근본적 활동은 속성들 간의 어떤 상호연관들이 투사가능(projectable)함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한 범주의 표본에서 관찰된 상호연관이 그 범주의 다른 사례들 및 그 범주 전체로 신빙성 있게 투사될 수 있어야만, 과학 이론과 그를 통한 과학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리피스의 표현대로 하면, 자연종은 한 범주의 표본에서 그 범주 전체로 신빙성 있는 외삽(extrapolation)이 가능한 범주, 다시 말해 귀납적인 과학적 발견을 가능케 하는 범주이다.<sup>16)</sup> 혹은, 자연종이란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주제(subject matter)에 내재한 어떤 구조에 대응하도록 세계를 분류하는 방식이다.<sup>17)</sup> 어떤 어휘를 사용하든지 간에, 어떤 범주가 자연종 지위를 적법하게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곧 귀납과 설명을 주된 임무로 하는 과학 활동의 적절한 탐구 대상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의 자연종 지위 문제를 제기했던 출발점이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자연종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필요충분조건 of 집합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부적절하며, 새로운 자연종 개념을 탐색해야할 필요성은 무엇 때문인가? 먼저 직관적인 이해에서 출발해보자. 어떤 범주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 위

16) Griffiths(2004a) & (2004b) 참조.

17) Griffiths(1997), p. 6.

해서 그 범주를 명료하고 정밀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충분할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유전자 개념을 생각해보자. 유전자 개념은 아직까지도 생물철학에서 개념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이다.<sup>18)</sup> 대체로 특정한 DNA 단편이 유전자라고 간주되어 왔지만, 정확히 어떤 DNA 단편이 포함되고 어떤 단편은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유전자가 분명한 형태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전공학이나 그와 관련된 생물학 분야들이 발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개념의 명료화가 유전자가 적절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임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한편 그것이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어떤 경우 유전자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할수록 다양한 증거들에 의해 오히려 쉽게 반박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엄격한 의미에서 필요충분한 속성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자연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리과학에서 약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화학종(chemical kind) 정도만 그런 의미에서 자연종이다. 분류학에 대한 현대적 논의에서 보면, 생물종(biological species)이 본질에 의해 정의되는 자연종이라는 본질론적 관점은 이미 낡은 견해가 되었다. 현대 생물학자들은 “[생물]종을 역사적 존재로 다룬다. 그들은 종을 자연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sup>19)</sup> 생물종이 역사적 종(historical kind)이라는 견해는 생물철학에서 이미 영향력 있는 견해가 되었다.<sup>20)</sup> 그러므로 전통적 의미의 자연종이 아니라고 해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따라서 감정이 전통적 의미의 자연종인지 따지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일 수 없다. 우리의 관심은 감정 개념이 적절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한지를 검토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18) 유전자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위해서는 장대익(2003)과 장대익(2005)의 4장을 보라.

19) Sober(2000), p. 281.

20) Mayr(1997), 장대익(1997) 등의 문헌은 이미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본질과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본질주의적 자연종 개념을 고수한 것과는 달리, 보이드(R. Boyd)는 보다 약화된, 그러나 우리의 논의와 매우 관련한 자연종 개념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어떤 것이 자연종이기 위해서는 (i) 상호연관된 속성들의 다발(property cluster)이 존재하면서, (ii) 그런 상호연관을 외삽하기 위한 파기가능한(defeasible)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단지 속성다발로는 자연종을 정의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킹은 경험론의 전통에서 자연종이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못하는 속성다발종의 경우 그 속성들을 하나의 다발로 묶어주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종 이론을 속성다발종으로 확장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속성들의 다발이라고 해서 반드시 규약적이거나 단지 개념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계의 인과적 구조에 의해서 정의되는 속성다발종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up>21)</sup>

해킹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자연종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는 신빙성 있는 귀납적 일반화를 정식화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종들을 특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의 본래 의도에 비추어볼 때 보이드가 자연종 개념을 확장하려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빙성 있는 귀납적 일반화를 위한 적절한 탐구대상이 단지 사회적 규약에 의해 정의되어서는 안 되지만, 후험적으로(a posteriori) 결정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연종은 배경 지식과 이론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자연종 개념은 투사가능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투사가능성은 배경이론들의 이론적 내용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찰적인 내용에도 의존하게 된다. 어떤 관찰가능한 속성들의 상호연관

---

21) 속성다발종에 관해서는 Boyd(1991)와 Hacking(1991)을 참조하라. 어떤 종류의 속성다발이 세계의 인과적 구조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논의를 통해 분명해질 것이다.

이 투사가능한 것인지를 판단은 (새로운 자료나 이론적 통찰에 의해) 배경이론들이 개정되면 그것에 비추어 ‘경험적으로’ 개정가능하다. 따라서 투사가능성 판단은 후험적 판단이다.<sup>22)</sup> 이는 임의의 속성다발이 자연종의 자격을 갖는 말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속성다발종을 귀납과 설명적 활동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의 인과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속성다발이라는 자연종의 회원자격 (membership) 기준을 만족시켜야한다.

필요충분조건에 의한 정의가 협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 전통적으로 자연종은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속성들(즉, 설명과 귀납과 관련된 속성들 간의 관계들)의 집합과 인과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그런데 무엇이 자연종을 ‘자연적인’ 범주로 만들어주는가? 흥미롭게도 자연종이 일군의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종이 속성들 간의 상호연관을 반영한다는 바로 그 점에 있다. 즉 중요한 것은 세계의 인과적 구조를 반영하는지 여부이다. 그래서 보이드는 ‘항상성을 지닌 속성다발종(homeostatic property cluster kind)’을 러셀식 자연종의 확장 개념으로서 제안한다. 그것은 흔히 동시발생하는 속성들의 다발과 그런 동시발생을 일으키는 항상성 기제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리고 이는 귀납적이고 설명적으로 유관한 세계의 인과적 구조에 대응하는 범주로서 적절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sup>23)</sup>

생물종은 본질주의적 자연종이 아니면서 항상성을 지닌 속성다발종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생물학에서 어떤 생물종이 귀납과 설명을 위해 적절한지는 그 생물종의 구성원들을 특징짓는 (항상성 기제를 갖는 homeostatically related) 형태학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들에 달려있다. 그런 특징들은 동시발생하는 속성들의 다발을 보여준다. 그리고 생물종의 경우 그런 속성다발을 가능케하는 항상성 기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상호교배(interbreeding)에 의한 종 분류 접근법에 따

22) Boyd(1991), pp. 136-137.

23) Boyd(1991), pp. 141-142.

르면,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교배는 유성생식을 통해 유전자를 교환함으로써 분류학적 안정성을 얻게 해준다. 상호교배가 한 종의 응집성을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제 확장된 자연종 개념을 가지고 감정의 자연종 지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볼 차례이다. 다음 절에서는 그리피스의 주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 III. 그리피스의 ‘감정’ 제거주의

그리피스는 감정은 자연종이 아니며 몇몇 특정한 감정들도 자연종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감정’이라는 일상적 개념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감정 제거주의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화(anger)라는 감정을 생각해보자. 내가 화를 느끼는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이론이 나의 심적 상태를 잘 설명해줄 것이지만, 화를 느끼는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동 한복판을 걸어가다 가방을 소매치기하려던 범인이 나를 치고 도망갔을 때 느끼는 화남과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의분을 비교해보라. 그리피스에 따르면, 감정 일반이나 화와 같은 특정한 감정들은 부분지시(partial reference)의 사례이다. 옥(jade)은 매우 잘 알려진 부분지시의 사례이다. 그것은 연옥이거나 경옥인, 서로 다른 두 광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지질학이나 화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그것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피스는 동일한 의미에서 감정은 심리학적 신경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하나의 종류가 아니며, 사실상 정서 프로그램(affect program), 인지적으로 복잡한 감정, 내재화된 사회문화적 행동(socially sustained pretence), 그 외 여러 가지 심리학적 상태들과 과정들이 따로따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4)</sup>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그리피스가 도대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 의심할 수 있다. 단지 감정은 자연종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새로운 것이 있다면, 개별 감정들도 자연종이 아니라는 것과 감정은 제거되어야 할 개념이라는 극단적인 주장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그가 정교하게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자연종 개념을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그는 보이드(R. Boyd)가 제안한 속성다발종(property cluster kind) 이론을 감정 논의에 적용함으로써, 감정의 자연종 지위 논쟁을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리피스에 따르면, 한 범주가 자연종인지 여부는 유관한 배경지식에 상대적이다. 그래서 감정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것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탐구의 초점이 되는 어떤 속성들의 영역에 대해서 자연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감정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적절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한 사례에 해당하는 심리적, 신경학적 발견은 다른 영역의 사례들로 외삽하고 투사할 수 없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감정은 이런 의미에서 자연종이 아닌가?

그리피스의 논증은 정서 프로그램과 보다 인지적으로 복잡한 감정들 간의 구별에 의존하고 있다. 전자는 에크만(Ekman)의 여섯 가지 기본 감정(basic emotion)을 수용한 것으로, 단기간만 지속되고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지각정보를 처리하는 초기단계에서 촉발되고, 우리가 다른 포유류와 공유하고 있는 해부학적으로 오래된 두뇌 구조에서 실현되는 것들이다.<sup>24)</sup> 이는 범문화적(pan-cultural)으로 발견될 뿐 아니라 다른 영장류들이 보이는 (정서) 반응과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반면, 후자는 ‘상위 인지적 감정(higher cognitive emotion)’들로, 고도의 인지적 정보를 활용하며 인지적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자기 혐오 등은 정서

24) Griffiths(1997)와 (2004a)를 참조하라.

25) 에크만의 기본감정에 대한 옹호는 Ekman(1992)에서 볼 수 있다. 대개 기본감정으로는 화, 공포, 혐오, 슬픔, 기쁨, 놀람을 꼽는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위 인지적 감정에 속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감정이 자연종이 아닌 까닭은 정서 프로그램과 상위 인지적 감정이 서로 구별될 뿐 아니라 어느 것이 다른 하나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복잡한 감정들은 단순한 기본 감정들의 조합에 의해 설명된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단단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억측일 뿐이다. 여기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기본 감정들의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겠다. 첫째, 복잡한 감정들은 기본 감정들의 평가 기준들을 단순취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평가 작업을 필요로 한다. 둘째, 복잡한 감정들은 보다 오래 지속된다. 단순히 기본 감정들의 혼합이라면 어떻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셋째, 기본 감정들은 전형적으로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데, 복잡한 감정들이 그러한 얼굴 표정들의 가중합(weighted sum)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넷째, 질투와 도덕적 분개와 같은 감정의 유발 인자는 정서 프로그램의 유발 인자들의 조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복잡한 감정들이 단순히 정서 프로그램들의 카테일이라는 생각은 지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그리피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심리학적 과정이 사실상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이라는 통속적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생태학에서 확립된 유사성에 대한 구분, 즉 상동(homology)과 상사(analogy)의 구분을 차용한다. 상동기관은 서로 다른 동물들에서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동일한 기관이다. 진화적으로 보면 공통조상에게서 그 기관을 물려받았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엉덩이와 말의 엉덩이가 닮아 있는 것은 둘이 상동기관이기 때문이다. 반면, 상사기관은 서로 구조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들이 동일한 생태학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로 닮도록 진화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새의 날개와 박쥐의 날개가 닮은 것은 공통된 조상에서 물려받은 탓이 아니라 생태적 역할이 같았기 때문

이다. 두 날개의 닮음은 상사성에 기초한 것이다.<sup>26)</sup>

이제 그리피스는 감정 일반에 대한 심리생물학적 연구가 심리학적 상사의 이론이 될 수는 있지만,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목적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설명과 귀납을 잘못 설정된 영역 위에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sup>27)</sup> 예컨대 쥐의 공포와 문어의 공포를 비교해보자. 두 동물의 공포 반응은 닮아있지만, 그것은 상동적이지 않고 상사적인 심리학적 형질이다. 상사성에 기초한 유사성은 알을 수밖에 없다. 새의 날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박쥐의 날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새와 박쥐는 동일한 생태적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동성에 기초한 유사성은 보다 깊다. 침팬지의 감정 표정과 인간의 표정을 분석하는 것은 보다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동과 상사의 구분은 보이드의 ‘항상성을 지닌 속성다발종’을 그리피스의 방식으로 해석하게끔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어떤 속성다발종이 자연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구조의 반영하는 항상성 기제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제 상동성에 기초한 유사성은 어떤 속성다발종을 자연적이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이다.

감정이 자연종이기 위해서는 정서 프로그램과 상위 인지적 감정이 그저 닮아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들의 상호유사성은 상사성이 아니라 상동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위 인지적 감정이 정서 프로그램의 단순 조합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그들의 유사성도 단순한 닮음 이상으로 깊은 차원에 뿌리박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심리학의 과제는 행동을 산출하는 기제를 밝혀내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 범주는 표면적 행동의 밑바탕에 놓인 기제를 발견하는데 발견법적으로 가치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동성에 기초해서 그런 기제를 추론하

26) 유사성의 기준에 대한 생물학적 논의로는 Mayr(1997), pp. 223-225를 참조할 수 있다.

27) Griffiths(1997), pp. 230-241



는 것은 좋은 과학적 활동을 가능케 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만, 상사성에 기초한 추론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피스의 입장에서 정서 프로그램은 상동성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종일 수 있다. 그러나 감정 일반은 자연종이 아니고, 화와 같은 개별 감정들도 자연종이 아니다.

#### IV. 비판과 대응

나는 이 절에서 중요한 두 비판자를 고려하려 한다. 첫 번째는 찰랜드(L. Charland)이고, 두 번째는 프린츠(J. Prinz)이다. 찰랜드는 보이드와 그리피스가 채택한 속성다발로서의 자연종 개념을 수용하고 오히려 그것을 확장함으로써 감정이 자연종임을 주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프린츠의 주장은 표준적인 반론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찰랜드의 비판을 살펴보자. 그는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자연종 개념을 거부하고 항상성을 지닌 속성다발로서의 자연종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개념을 더욱 밀고나가 일반화하면 감정은 자연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28)</sup> 그에 따르면, 기본 감정들을 하나의 종으로 묶을 만큼 충분한 정도로 상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상동성에 기초한 분류에 따르더라도 감정은 하나의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그가 그리피스의 주장을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는 감정이 자연종이라는 주장을 감정 행위자(emoter)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재해석한다. 여기서 감정 행위자란 행동 및 발달이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유기체들의 자연적 부류(natural class)를 말한다.

찰랜드는 판크넵의 논의에 의존하여, 기본 감정들의 통합된 기제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그것들이 인간 뿐 아니라 포유류의 두뇌에서도

---

28) Charland(2002) 참조.

자연종을 형성하는 독특한 회로에 의해 구현된다고 보았다. 즉 기본 감정들의 통합 회로는 모든 포유류에게 있어서 자연종을 이룬다는 것이다. 판크셉은 신경학적으로 감정을 정의하려 했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기본 감정 체계는 신경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원리를 공유한다.<sup>29)</sup> 물론 그가 제시한 일곱 가지 기준은 정확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그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불완전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일곱 가지 기준에 의해 포착되는 속성다발은 진화적 상동기 관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그것들은 포유류 선조를 갖는 모든 생명체들이 공유하는 두뇌 조직의 신경적 구조이자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과적 항상성에 기초한 속성다발종으로서의 자연종 개념을 수용한다면, 판크셉의 기본 감정 체계는 자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컨대, 판크셉의 일곱 기준에 따라 작동하도록 진화된 뇌를 지닌 생물은 곧 감정 행위자(emoter)이고, 그런 점에서 감정 행위자와 그것의 기본 감정들은 자연종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피스는 감정에 해당하는 단일한 심리학적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1)</sup> 그러나 찰랜드에 따르면, 인간이 감정 행위자로서 다른 생물종들과 공유하는 오래된 정보처리의 양식이 바로

---

29) 그가 제시한 기준을 대강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i) 바탕에 놓인 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의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설계되어 있다. (ii) 이 회로들은 운동 신경의 서브루틴(subroutine)과 자율신경계 및 호르몬 변화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다양한 행동들을 조직한다. (iii) 감정적 회로는 유관한 감각체계의 수용성(sensibility)을 변화시킨다. (iv) 정서 체계의 신경적 활동은 유발 환경보다 오래 지속된다. (v) 감정적 회로는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환경 자극의 조건적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 (vi) 감정적 회로들은 고등 의사결정 과정과 의식을 만들어내는 두뇌 기제와 상호작용한다. (vii) 감정적 회로들은 정서적 느낌(affective feelings)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Panksepp(1998), pp. 48-49 참조.

30) Charland(2002), p. 520.

31) 각주 6를 참조할 것.

감정이고, 이는 기본 감정 체계가 자연종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그리피스의 견해는 반박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가 그리피스의 진의를 잘못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그리피스가 의도했던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감정’이라는 개념이 적절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일상적 감정 개념을 제거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찰랜드가 포유류 사이에서 폭넓게 상동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개념이 정확히 일상적 감정 개념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 찰랜드는 이점에서 혼동을 범하고 있다. 판크셉조차도 그의 정서적 신경과학(affective neuroscience)에서 감정 자체(emotion proper)와 신체 상태를 조절하는 충동 상태(drive state)를 구별한다. 사실 판크셉이나 다마지오 같은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정서적 신경과학의 대상은 단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정서적 느낌(affective feeling)을 포함하는 모든 심리적 과정이다. 찰랜드는 감정 행위자가 자연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서적 신경과학’의 탐구 대상인 기본적 감정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크게 빗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일상적 감정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그것은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같은 충동 상태뿐 아니라 고통과 즐거움 같은 쾌락적(hedonic) 상태를 포함하며, 신체 상태에 대한 자각까지도 포함한다. 때에 따라서는 욕구나 선호와 같은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일상적 감정 개념이 자연종임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정서적 느낌을 포함하는 다양한 심적 상태들을 하나의 자연종으로 볼 수 없을까? 그런 범주는 감정보다 훨씬 폭넓기는 하지만, 상동성에 기초한 속성다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적인’ 범주로 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상동성이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다. 만일 상동성에 기초해서 닮아있다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가 공통조상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자연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범주의 발견법적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그렇

게 넓어서는 지식의 진전을 이루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모든 화학 원소들, 혼합물들, 합금들,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하나의 화학적 범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에서의 진보는 각각의 화학종들에 대한 탐구, 다양한 화학 반응들에 대한 자세한 실험, 혼합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의 화학적 범주를 연구함으로써 성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찰랜드의 전략은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제 프린츠의 반론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는 감정이 자연종이 될 정도로 모든 감정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다는 표준적인 반론을 되풀이한다. 프린츠는 감정이 신체의 패턴화된 변화에 대한 지각이라는 제임스-랭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보존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반론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정하여 ‘체현된 평가(embodied appraisal)’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감정들은 공통의 본질을 공유하고, 그 본질이란 감정들이 모두 체현된 평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감정은 체현된 평가임에 의해서 자연종이 된다.<sup>32)</sup>

그리피스에 대한 프린츠의 구체적인 비판을 살펴보자. 프린츠는 그리피스의 주장이 진화심리학과 사회구성주의 사이에서 선택해야하는 상황을 비겁하게 피하고 양쪽 모두가 부분적으로 옳다고 주장한 잡종(hybrid) 이론이라고 규정짓는다. 그리고 잡종 이론보다는 모든 감정들을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통일된 이론이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감정들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들을 지닌다. 전형적으로 표정 및 신체 반응을 동반하고, 동기로서 작동하며 폭발적이다. 또한 중첩되는 두뇌 구조를 포함한다. 따라서 감정이 공통원소가 없는 하위부류들의 집합이라는 그리피스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둘째, 잡종 이론은 감정이 고도로 인지적이면서 동시에 고도로 비인지적인 에피소드에 걸쳐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감정에 대한 우리의 어휘는 원초적인 감정과 인

---

32) Prinz(2004b) 참조.

지적으로 세련된 감정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을 서로 다른 범주들로 나누려는 시도는 통속 분류학(folk taxonomy)를 위배한다. 셋째, 어떤 감정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있고 다른 감정은 진화된 것이라면, 어떤 감정을 어떤 이론이 맡아서 설명해야하는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자들과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정확히 동일한 감정들을 설명하려고 애쓴다. 양 진영은 모두 사랑과 화를 설명하려 한다. 문화적인 것과 생물학적으로 진화된 것 사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면, 잡종 이론의 동기를 상실된다.

먼저, 감정들이 서로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는 주장으로는 감정이 자연종임을 입증할 수 없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것이 항상성을 지닌 속성다발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유사성이 있더라도 상동성이 아닌 상사성에 기초해 있는 경우 자연종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프린츠의 첫 번째 반론은 자연종 개념에 대한 소박한 이해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설득력이 없다. 세 번째 반론은 일견 그럴듯하지만, 과연 양 진영이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려 하는지 의심스럽다. 똑같이 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서 프로그램의 지지자는 신경학적 기초를 통해 설명할 것이고, 구성주의자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이 경우 두 사람이 똑 같은 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라는 현상도 정서 프로그램적인 의미의 화가 있는 반면, 인지적으로 복잡한 의분이나 분개와 같은 화도 있다. 따라서 두 화가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논점을 선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감정은 하나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규범적 주장으로 보인다. 도리스는 그리피스의 책을 서평하면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폈다.<sup>33)</sup> 그는 감정을 여러 하위 부류들로 나누어야 한다면, 다른 일상적 개념들에게도 동일한 논증이 적용된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게임(game)과 같은

33) Doris(2000) 참조.

단어는 자연종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스포츠 경기, 심심풀이, 장 기놀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게임’이라는 단일한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규범적 실천에서의 역할로부터 그 범주의 단일성을 도출된다. 간단히 말해, 그것들은 규범적 종(normative kind)이다. 물론 도리스에 따르면, 감정도 그러한 규범적 종이다.

감정이 규범적 종이라는 비판은 사실상 비판이기보다는 보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범주이든지 간에 규범적이기만 하고 기술적이지도 않고 설명적이지도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이 적절한 과학적 활동의 대상이 되려면 설명적 역할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규범과 기술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예컨대, 어떤 것이 정신 질병인지 아닌지는 규범적 역할을 한다. 치료를 권하거나 병원에 ‘감금’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학과 정신과학의 연구를 통해 무엇이 정신 질병인지의 기준이 변화하기도 한다. 만일 그 범주가 변화하면 규범 역시 변화해야 한다. 규범은 무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언어공동체의 다양한 실천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기술적 작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다.<sup>34)</sup> 따라서 나는 감정에 대한 일상적 어휘의 통일성을 근거로 한 도리스와 프린츠의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감정은 결국 동일한 내적 구조(즉, 체현된 평가라는 것)를 가진다는 프린츠의 주장은 어떤가? 게다가 그는 모든 감정들이 중첩되는 두뇌 구조를 포함하며, 동일한 임상적 조건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덧붙인다. 이런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자

34) 규범과 사실의 관계, 규범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의 관계는 인식론의 자연화를 시도하는 많은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다음의 과학철학적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조인래(2006), 「철학 속의 과학주의-과학철학의 자연화」, 『과학철학』 9권 2호, pp. 1-33; 천현득(2006), 「규범적 자연주의와 도구적 합리성」, 『과학철학』 9권 2호, pp. 101-134.

연중으로 만들어주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나의 통합된 과학적 심리학을 가능케 할만큼 충분히 유사한 심리적 과정과 상태라고 할 수 있는지 대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감정이 체현된 평가라 할지라도, 어떤 체현된 평가는 신속하게 유발되며 다른 것은 느리게 유발된다. 어떤 것은 의식적 경험을 동반하지만 다른 것은 무의식적이다. 어떤 것은 자동적인 변화를 겪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 어떤 것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표정변화를 동반하지 않지만, 다른 것은 단기간 지속되면서 전형적으로 표정을 동반한다. 프린츠는 단지 공통점이 있다는 주장을 넘어서, 이러한 차이들이 왜 유의미한 것이 아닌지를 보여야할 증명의 부담이 있다.

게다가 프린츠의 어떤 논의는 오히려 특정한 감정들이 자연종이 아닐 가능성까지 시사한다.<sup>35)</sup> 그는 에크만의 여섯 가지 기본 감정이 순수하게 생물학적으로 토대지어진 것인지를 검토하면서, 행복의 경우 감각적 쾌감, 목표 성취와 관련된 만족, 놀이에서 얻는 기쁨 등으로 나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놀람의 경우 관심이나 경이로움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낮은 수준의 공황과 유사한 부정적인 것도 있다. 따라서 기본 감정들은 본유적(innate)이라고 할 수 없고, 모든 문화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각 문화는 생물학적으로 토대지어진 감정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논의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든 간에, 이는 그리피스가 어떤 개별 감정들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한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갖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놀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상 다양한 하위부류의 이질적 집합이라는 것이 그리피스의 핵심주장이었다. 개별 감정들조차도 이렇게 이질적인 상황에서 감정 일반이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감정이 자연종이라고 주장한 프린츠의 논변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35) Prinz(2004b)의 3절을 보라.

## V. 감정의 자연종 지위와 감정 제거주의

이제까지 나는 그리피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감정이 자연종이 아님을 논의해왔다. 왜 이것이 여전히 철학에서 문제인가? 많은 철학자들은 전형적인 인간 감정의 형성, 발달, 귀결을 설명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이 자연종이 아니라 이질적인 집합이라면, 전형적인 감정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 감정적 과정 및 반응들만이 존재할 뿐이고,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그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의 지향성을 설명하려는 많은 철학자들은 모든 감정이 똑같은 방식으로 환경에 대해 정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감정이 이질적이라면, 다양한 종류의 감정적 지향성을 탐구하고 그것들이 실제적인 감정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감정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그리피스의 주장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감정’ 개념은 정말 제거되어야 하는가? 나는 이 지점에서 망설여진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내 생각에, 감정 제거주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더 이상 감정은 과학적 탐구의 영역에서 유용한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영역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 수준의 어휘에서도 감정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가 과학적 감정 제거주의라면 후자는 일상적 감정 제거주의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그리피스는 감정이 자연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이 심리학적 과학에 적합한 탐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일상적인 ‘감정’ 개념은 제거되어야 할 개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입장을 과학적 제거주의로 보는 편이 공정한 독해이다. 그런 면에서 그가 아주 과격한 제거론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학적 제거주의의 손을 들어주기에 주저하게 된다. ‘감정’이 과학의 적절한 탐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개념이라는 결론이 따라나오는지 여전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그리피스 자신이 제시한 비타민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sup>36)</sup> 비타민은 한때 생각되었듯이 ‘생명의 아민(vital amine)’이 아니다. 그것은 생리학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들의 이질적인 집합이다. 그들을 비타민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합성할 수 없거나 혹은 (비타민 D와 같이) 호의적인 환경 하에서만 합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이 부족하면 결핍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이런 공통점들을 바탕으로 비타민 개념은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비타민들은 자연종일 수 있지만, 비타민 자체는 피상적인 기술적 범주일 뿐이다. 비타민 일반을 탐구하는 과학적 기획이 현명한 일이 아니듯, 일상적인 감정 개념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나는 여기까지 그의 논의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학적 탐구에서 비타민 개념을 제거해야한다는 결론으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다.

먼저, 일상적이고 규범적인 실천에서 비타민은 여전히 효력 있는 개념이며, 그것에 대한 개념적 기능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그리피스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비타민 개념을 과학 영역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이 분리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다. 과학의 어휘는 일상적 개념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리를 시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과학을 위한 인공 언어를 구성하려는 노력이나, 과학적 개념의 의미를 실험적 상황에 의해서만 조작적으로(operationally) 규정하려는 노력이다. 현재 그런 노력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과학의 어휘들이 일상적 개념과 맞닿아 있음으로 인해, 때로 명료화되지 못한 채로 과학적 개념들이 통용되기도 하고 과학적 개념들

---

36) Griffiths(2004b), p. 234.

의 발전 속도를 일상 언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의 상호작용이 때때로 왜곡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일상적인 언어공동체의 언어적 실천을 통해서 과학적 개념이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비타민 A에 대한 탐구는 비타민에 대한 피상적 기술과 떨어질 수 없다. 화학과 생리학에서 비타민 A가 왜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고, 부족할 경우 발육 부진이나 야맹증과 같은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겠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담화 상황에서 교환되는 ‘비타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기능적 분석과 무관하지 않다.

내 생각에, 그리피스는 자연종으로서 적절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과학의 언어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동일시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언제나 약간의 간격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피스 자신이 인정했듯이, 자연종은 과학적 탐구의 ‘초점’이 되는 대상이고, 과학의 언어는 초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어의 의미망이 전체론적으로 얽혀있음을 인정한다면, 초점과 주변부를 무 자르듯 가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자연종이 된다는 것과 과학의 언어에 포함된다는 것 사이의 간격은 어쩔 수 없이 생긴 필요악이 아니다. 그런 간격이 있어야만, 지나치게 단편화되고 전문화된 과학 활동들을 통합해낼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 끝.

## 참고문헌

- 양선이 (2007),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연구』 79집, 철학연구회, pp. 119-122.
- 장대익 (1997), 『생물종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대익 (2003), 「유전자에 대한 진실을 찾아서: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서 발생계 이론까지」, 『ESLI 연구』 제1권, KAIST Press. pp. 61-83.
- 장대익 (2005), 『이보다보 관점에서 본 유전자, 선택, 그리고 마음: 모듈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oyd, Richard (1991), "Realism, Anti-foundationalism and the Enthusiasm for Natural Kinds", *Philosophical Studies* 61: 127-148.
- Charland, Louis (2002), "The Natural Kind Status of Emotion."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53(4): 511-537.
- Damasio, A.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Y: G. P. Putnam; 『데카르트의 오류』, 김린 옮김, 중앙문화사.
- Damasio, A. (1999), *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New York: Harcourt Brace.
- Damasio, A. (2003), *Looking for Spinoza: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Orlando: Harcourt; 『스피노자의 뇌』, 임지원 옮김, 사이언스북스
- de Sousa, R. (1987), *The Rationality of Emotion*, Cambridge, MA: MIT Press.

- de Sousa, R. (1999), "Review of Paul E. Griffiths, *What Emotions Really Are: The Problem of Psychological Categories*", *Dialogue: Canadian Philosophical Review*, 38(4): 908-11.
- de Sousa, R. (2002), "Emotional Truth", *Proceedings of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 76(1), pp. 247-263.
- Doris, John (2000), "review of Paul E. Griffiths, *What Emotions Really Are: The Problem of Psychological Categories*", *Ethics* 110 (3): 617-619.
-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6: 169-200.
- Griffiths, P. (1997), *What Emotions Really Are: The Problem of Psychological Categor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iffiths, P. (2004a), "Emotions as Natural and Normative Kinds", *Philosophy of Science* 71: 901-911
- Griffiths, P. (2004b), "Is emotion a natural kind?", in R.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 Oxford Univ. Press, pp. 233-249.
- Hacking, I. (1991), "A Tradition in Natural Kinds", *Philosophical Studies* 61: 109-126.
- James, W. (1884), "What is an emotion?", *Mind* IX: 188-205.
- LeDoux, J. (1996), *The Emotional Brain: the Mysterious Underpinnings of Emotional Life*, NY: Simon & Schuster; 『느끼는 뇌』, 최준식 옮김, 학지사
- Mayr, Ernst (1997), *This Is Biolog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이것이 생물학이다』, 최재천 외 옮김, 서울: 몸과마음.
- Neu, J. (2000), *A Tear is an Intellectual Thing: the Meanings of Emo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anksepp, J. (1998), *Affective Neuro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nksepp, J. (2000), "Emotions as Natural Kinds within the Brain", in M. Lewis and J. 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 (2nd Ed.), NY: Guilford Press, pp. 137-155.
- Prinz, J. (2004a), "Embodied emotions", in R.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44-59.
- Prinz, J. (2004b), "Which emotions are basic?", in D. Evans and P. Cruse (eds.), *Emotion, Evolution, and Rati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Rorty, A. O. (1978), "Explaining Emo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75: 139-161.
- Rorty, A. O. (2004), ""Enough Already with "Theories of the Emotions""", in R.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 269-278.
- Sober, E. (2000), *Philosophy of Biology* (2nd ed.), Westview Press; 『생물학의 철학』, 민찬홍 옮김, 서울: 철학과현실사.

ABSTRACT

Is Emotion a Natural Kind?

- Natural kind status of emotion and emotion eliminativism

Cheon, Hyun-Deuk

There is nothing new in claiming that emotions are not natural kinds. That claim may provide a explanation for the reason why various theories of emotion still do contest intensively. In this paper, I argue that a new discussion about natural kind status of emotion is required, by indicating the limitation of classical natural kind concept, defined by a set of sufficient and necessary conditions, which old discussions commonly assume. Thus I propose a concept of 'homeostatic property cluster kinds' as a extension of classical natural kinds, and apply the concept to emotion to examine the natural kind status of it. I advocate Griffiths' position that emotions are not natural kinds in the light of a new natural kind concept, and reply to objections of critical philosophers. However, I criticize the emotion eliminativism that Griffiths claims, and argue that eliminativism does not followed by the fact that emotions are not natural kinds.

**Keywords:** emotion, natural kind, property cluster kind, emotion eliminativism